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거듭나자

삼성 전자, '강소기업'을 테마로 협력사와 상생 워크숍 개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지난 10월 삼성전재대표 이윤우는 협력사가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공감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중소벤처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소기업으로 가는 빠른 길을 제시한 그날의 열띤 현장을 소개한다.

정리_ 편집부 | 자료제공_ 삼성전자

- CEO의 역할이 중요

삼성전자는 협력사 협의회(이하 협성회)와 함께 원주 오크밸리에서 '상생워크숍'을 열었다. 이 행사는 160여 개 협력사 대표와 삼성전자 임직원 4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행사를 주관한 협성회장 이세용 (주)이랜텍 대표는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삼성전자와의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상생협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협력사들도 각자 핵심역량을 갖춰 강소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워크숍에서 성균관대학교 유필화 교수는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강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유 교수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핵심역량에 집중해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CEO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이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영배 교수 역시 '전자산업의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개발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CEO의 역할을 강조했다.



- 경영자문단, 강소기업으로 가는 길 좁는다

학계 교수들의 강의에 이어 지난해 5월 상생협력실 출범이후 상생협력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5월, 기획·제조·관리 등 삼성전자 전 임원출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은 현재까지 6개월 간 약 140개 사를 직접 방문해 회사별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하는 지원활동을 했다.

기지국용 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주)케이앤티블유의 관계자는 "삼성전자 경영자문단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지원이 큰 도움이 돼서 기존대비 30%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경영자문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그 수혜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삼성전자는 IMP 이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급성장하게 된 배경을 실사례를 들어 설명, 협력사 대표들에게 위기극복과 혁신을 주제로 한 경영전략 노하우를 전파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반도체 장비업체 (주)프롬써어티 임광빈 대표는 "최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강소기업으로 끝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실 관계자는 "해마다 상생워크숍이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위한 새로운 화두를 공유하는 자리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년에도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